국립국어원 소식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다듬은 말 선정

- 핀테크(fintech)의 다듬은 말: 금융 기술(서비스)
- 에이티브이(ATV: All Terrain Vehicle)의 다듬은 말: 사륜 오토바이
- 라인업(line up)[01]의 다듬은 말: 출연진
- 라인업(line up)[02]의 다듬은 말: 제품군
- 버스킹(busking)의 다듬은 말: 거리 공연
- 피투피(P2P: peer to peer)의 다듬은 말: 개인 간(공유)
-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의 다듬은 말: 인간형 로봇
- 페이백(pay back)의 다듬은 말: 보상 환급
- 왜건(wagon)의 다듬은 말: 유아 수레
- 섬네일(thumbnail)의 다듬은 말: 마중그림
- 비바크(〈독〉Biwak)의 다듬은 말: 산중 노숙
- 비투비(B2B: Business-to-Business)의 다듬은 말: 기업 간 거래
- 비투시(B2C: Business-to-Customer)의 다듬은 말: 기업 · 소비자 거래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혼성어로 '정보 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이를 '금융 기술(서비스)'로 다듬었다. '에이티브이'는 지형을 가리지 않고 각종 험로 및 장애물 등을 주파하는 목적에 특화된 탈것을 가리킨다. '사륜 오토바이'로 다듬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지불한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하는 '페이백'은 '보상 환급'으로, 유아들을 태울 수 있는 바퀴가 네 개 달린 수레인 '왜건'은 '유아 수레'로 다듬었다. '섬

네일'은 영어 어원상 의미는 '엄지손톱'이나 '매우 작은 것'을 가리키지만 그래픽 파일의 이미지를 작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를 뜻하므로 '마중그림'으로 순화했다. 또한 등산 도중 궂은 날씨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서 한데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뜻하는 '비바크'는 '산중 노숙'으로,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기반 전자 상거래를 가리키는 '비투비'는 '기업 간 거래'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인 '비투시'는 '기업 · 소비자 거래'로 다듬었다.

'라인 업'이란 외래어는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연 등에서 쓰일 때는 이에 참가하거나 출연하는 사람의 구성을 뜻해 '출연진'으로 다듬었다. 다른 뜻으로 한 회사의 제품군이나 제품군 명단을 의미할 때는 '제품군'이라는 말로 다듬어 쓰면 되겠다.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일컫는 말로, '거리 공연'으로 다듬었다. 개인과 개인, 또는 단말기와 단말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나 데이터 교환을 의미하는 '피투피'는 '개인 간 (공유)'로, 외관이나 행위가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가리키는 '휴머노이드(로봇)'는 '인간형 로봇'으로 다듬었다.

2. 국립국어원 한글날 기념 학술 대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10월 16일(금)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에서 광복 70주년이면서 〈국어기본법〉 시행 10년이 되는 올해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화융성 시대의 우리 말글과 〈국어기본법〉"이라는 주제로 전국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한국어

문학술단체연합회와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주관했으며, 올해 시행 10년이 되는 〈국어기본법〉을 바탕으로 그간 시행된 여러 가지 국어 정책의 성과들을 살펴보고,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국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1. 문화융성을 선도하기 위한 국어 정책의 방향 모색

이번 학술 대회는 지난 10년 동안 〈국어기본법〉을 바탕으로 한 여러 국어 정책의 성과들을 살펴보고, 우리 국어 정책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자리였다. 기조 강연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창원 교수가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국어 정책의 조망-〈국어기본법〉 10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국어기본법〉의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언어, 전문 용어, 한국어 교육 등 〈국어기본법〉 내용 중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분야 정책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주제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2.2. 어문학계의 전반적인 흐름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

오후에는 국어학 · 국문학 · (한)국어 교육학의 3분과로 나누어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국어학 분과에서는 "광복 70년 동안의 국어학과 국어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어학 분야의 현재 쟁점과 국어 정책과의 연관 관계에 대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국문학 분과에서는 "우리 문학에 담긴 의식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우리 문학 속 향가, 설화, 근현대 소설 등과 관련된 연구 쟁점들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분과에서는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현재 언어 교육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 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을 접할 수 있었다.

2.3. 우리 말글의 발전과 계승을 위한 정책 수립 노력

〈국어기본법〉은 2005년 1월 제정되어 그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내의 다문화 환경을 배경으로 한 변화, 국외의 한국어 위상 변화, 남북 통일에 대비한 언어 정책 등 현재 우리의 국어 정책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국어 정책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어기본법〉이 그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는 법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언어 현실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우리 말글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학술 대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말과 글을 통한 문화융성의 길을 준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위치: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자료 찾기'→ '연구 결과' → '기타 자료' → 검색: 검색어 '실무소위'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1차 심의 확정안(2015. 8. 21.)
- 제122차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8. 27.)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2차 심의 확정안(2015. 9. 4.)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3차 심의 확정안(2015. 9. 11.)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4차 심의 확정안(2015. 9. 18.)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5차 심의 확정안(2015. 9. 25.)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6차 심의 확정안(2015. 10. 8.)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7차 심의 확정안(2015. 10. 16.)
- 제123차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 결정안(2015. 10. 21.)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8차 심의 확정안(2015. 10. 30.)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29차 심의 확정안(2015. 11. 6.)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30차 심의 확정안(2015. 11. 13.)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31차 심의 확정안(2015. 11. 20.)
- 정부 ·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제32차 심의 확정안(2015. 11. 27.)

4. 국립국어원,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 협약

국립국어원과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9월 14일 국립생물자원관 회의실에서 생물 관련 지식 정보에 대한 좀 더 편리한 접근과 활용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국어원과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생물 관련 정보를 알기 쉬우면서도 정확하고 다양하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생물과 관련한 다양한 어휘 정보(사전 뜻풀이 및 관용구, 속담, 역사적 정보, 지역어 등)를 국립생물자원관과 공유함으로써 생물 자원 연구와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2016년 10월 개통 예정)에 실리는 생물 관련 낱말의 풀이를 감수하여 생물 전문 용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감수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어려운 생물 관련 전문 용어들이 더욱 쉽게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두 기관은 이후 확정되는 생물 국명 표기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전문가가 사용하는 낱말이 정확한 뜻풀이와 함께 '우리말샘'에도 등재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번 두 기관의 협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기관이 힘을 합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융·복합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5. 국내 대학 언어교육원 소속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 개최

국립국어원은 지난 9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15년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1차와 2차 연수회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는 주제로, 3차 연수회는 5년 이상의 경력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효율적 교수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어 교수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특강과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는 분임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알찬 교육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는 전국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자리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송철의 국립국어원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가르치면서 궁금했던 것을 해소하고, 한국어를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내용을 많이 배워 가길 바란다."며 "한국어 교육자로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와 교육 등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은 국내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근무하는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한국어 교원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연수회는 수도권에서만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전국에 있는 교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3개 지역(대전, 경주, 수도권)에서 확대 개최되었다.

6.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UCC) 공모전'

국립국어원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소통상의 갈등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매체로 표현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 언어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11월 20일 국립국어원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대화 상황의 갈등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로, 대화 태도 불량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나 세대 간 소통 중 일어나는 갈등 등 소통 과정에서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개선 방향(이해, 공감, 배려, 경청 등)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손수제작물을 통해 제시하도록 했다. 총 11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청소년부 75편, 대학 · 일반부 37편), 심사를 거쳐 총 7편(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그간의 여러 공모전이 청소년의 욕설이나 비속어 개선 등에 치우쳐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공모전은 '대화 상황 갈등 개선'을 주제로 했다. 손수제작물로 나타내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주제였음에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통의 문제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제작 기법으로 나타낸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대상을 받은 정효진(신계초, 6학년) 학생의 '대화의 첫걸음'은 초등학생의 미숙한 그림을 컷 아웃 애니메이션(cut out animation) 기법을 활용하여 나타냈는데, 자동차를 '대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자동차 진입을 막는 장벽을 '우리의 귀와 마음'으로 비유하였다. 이 작품은 초등학생의 눈에 비춰진 어른들의 어두운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하였으며 괄호를 이용한 갈등 해소 방안 제시가 참신하게 와 닿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과 일반인 모두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소통과 공감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청소년의 언어문화가 조금씩 개선되어 우리의 미래도 더욱 밝아지기를 기대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의 '자료 찾기 → 국어 관련 영상 및 방송 → 영상 · 방송 자료 →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 공모전 수상작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초청 연수' 개최

7.1.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국립국어원과 배재대학교(총장 김영호)는 10월 5일부터 2주 동안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세계 26개국 34명의 한국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국립국어원은 이와 같은 행사를 1992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이번 초청 연수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들에게 한국어 교수법,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최신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양적 확대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초청 연수 참가자들은 26개국의 재외공관에서 추천을 받은 현지의 우수 한국어 전문가 34명이다. 국외 대학의 교수 외에 고등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사 등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양한 교원들이 참여했다. 총 120시간으로 운영된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들이 다양한 교과 강의를 담당했으며, 강의 외에 현장 학습과 특별 활동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7.2.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알리는 꿈을 안고

이번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은 국적과 소속, 직업은 물론 한국어와 인연을 맺은 사연이 다양하다. 네팔에서 온 감비르 구릉 씨는 1991년 한국에 와서 8년간 일을 해 돈을 번 다음 네팔에 돌아가 고향에 고등학교(FUTURE LIGHT)를 세워, 본인이 직접 매주 2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자신과 같이 '코리안 드림'을 이룬 네팔인 500여 명을 모아 '네팔 한국개발위원회'라는 단체도 만들어 네팔인들이 한국을 배워 조국 발전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라오스에서 온 카이캄 씨쏨푸 씨는 라오스국립대학교의 어문학과 교수였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 연수를 받은 뒤 한국어학과를 개설해 학과장이 된 이력을 가진 카이캄 교수는 한국어가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후학 양성의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 연수회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립 아자디 세계언어대학교 1기 졸업생인 후다이나자로바 믈라임 선생은 학생에서 선생님이 된 현지 교원이다. 이번 연수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국과 한국어를 본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당차게 포부를 밝혔다.

7.3. 한국어로 하나 되다

이번 초청 연수회 참석자들은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던 한글날 경축식에도 참석했다. 한글날은 각국에서 온 연수생들에게도 매우 의미 깊은 날이었다. 26개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한글과 한국어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연수생들은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경축식에 참석하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깊은 뜻을 함께 나눴다.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국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연수에 참가하는 26개국 한국어 전문가들과 토론회 시간 등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각 분야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이들과 국외 현지의 교육 자료 개발과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한국어 교재의 사용법, 교육 자료 개발의 과제 등과 관련된 문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협조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에도 연수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8.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국어사전 함께 즐기기" 개최

국립국어원은 국어사전과 우리말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올바른 국어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2015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국어사전 함께 즐기기'를 개최, 지난 10월 6일 수상작 36점을 발표하고 한글날인 10월 9일 시상식을 거행했다. '국어사전 함께 즐기기'는 전문가만이 해 왔던 낱말 뜻풀이를 직접 해 보는 '창의적 뜻풀이' 부문과 국어사전을 다양하게 활용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활용 수기' 부문으로 진행되었는데,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769개 작품이 접수되었다(창의적 뜻풀이 671개, 활용 수기 98개).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 36점은 심사위원회의 고심과 토론 끝에 21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치른 개인 혹은 단체의 작품이다.

8.1.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국어사전으로 대통합

창의적 뜻풀이 부문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참가하여

국어사전으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단체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과 최우수상은 대학생이 수상하였는데, '마음'을 '집중해서 귀 기울이면 들리는 자신의 에너지'로, '멋'을 '한 시대에서 유행의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은 이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예술적 가치'로, '우리'를 '울타리 안의 함께하는 사람들'로 풀이한 창의성이 돋보였다. 특히 아차상을 받은 한내초등학교 1학년(단체)은 낱말의 뜻풀이와 함께 그림도 그려 제출하였는데, '아름답다'를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느끼는 생각'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풀이하여 감동을 주었다.

8.2. 교육 현장에서 국어사전과 단계별로 친해지기

국어사전 활용 수기 부문에는 현장 교사들이 주로 참가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국어사전을 직접 찾아봄으로써 어휘력을 늘릴 수 있도록 단계별 활동을 구성하여 수업에서 활용하는 실제 사례를 주로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첫 단계는 '국어사전 속 낱말 찾기'인데, 국어사전과 친해져서 사전 찾기 방법을 배우는 활동, 두 번째 단계는 '국어사전을 이용한 초성 퀴즈'로 국어사전을 이용한 놀이 활동, 세 번째 단계는 '나만의 국어사전 만들기' 또는 '국어사전 동시 대회' 등인데, 이 단계는 국어사전을 활용해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보는 심화 과정이었다.

8.3. '2015 한글문화큰잔치'에서 수상작 전시도

한편 국어사전 진흥 공모전 '국어사전 함께 즐기기' 수상작 전시회가 제569돌 한글날을 맞아 진행된 '2015 한글문화큰잔치'에서 10월 8일과 9일 열렸으며, 10월 9일 한글날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시상식이 치러졌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이번 '국어사전 함께 즐기기' 공모전이 생활 속에서 국어사전을 활용한 우수 사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낱말 뜻풀이 체험을 직접 해 봄으로써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국어사전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운영지침(안) 공청회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원의 교육 실습 교과목의 운영 지침(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원 교육 기관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3일(목) 14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 운영지침(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한국어 교원 교육 과정의 교육 실습 영역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한국어 교원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한국어 교육 실습 영역의 교과목 확인 심사 기준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1. 한국어 교육 실습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한국어 교원 교육 기관이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강의 참관은 필수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강의 참관을 필수로 하여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 중 한 가지 이상 함께 운영하도록 하였다.

강의 참관은 한국어 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참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소 강의 참관 기준은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 전체 강의 시간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때 수강생들은 참관 보고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의 수업의 경우 지도 교수의 실제 현장 참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도록 하였다. 강의 실습은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직접 한국어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강의 실습 담당 교수(또는 교육 기관의 담당 교수자)는 수강생에게 지도와 평가를 하고, 수강생들은 실습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실습 교과목의 운영상 이론 비중을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하여 실습 교과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9.2. 한국어 교육 실습 수강 시기 기준 제시

한국어 교원 교육 기관은 한국어 교육 실습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필수 이수 영역의 일정 부분을 이수한 후에 수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영역 중 학부 과정은 한국어학 영역, 한국어 교육학 영역을 합하여 전공(복수 전공 포함) 24학점, 부전공 12학점 이상, 한국어 교원 단기 양성 과정은 60시간 이상,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한국어학 영역, 응용언어학 영역, 한국어 교육학 영역을 합하여 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수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9.3. 참관 및 실습 기관의 명확한 기준 제시

또한 한국어 교육 실습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국어 교육 실습 시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

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으로 동일하게 하였다. 이는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과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9.4. 공청회 의견 수렴해 운영 지침 마련, 2017년부터 적용

공청회에서는 김정숙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지침(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방성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상미 연세대학교 교수, 장은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한국어 교육 실습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어 교원 교육 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 운영 지침은 2016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며, 한국어 교원을 교육하는 기관은 이 운영 지침에 따라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10. 인사 이동

10.1. 임용

- 이나래(한시임기제 6호): 한시임기제공무원 재임용(2015년 11월 10일~ 2016년 3월 9일)
- 강경림(한시임기제 6호): 한시임기제공무원 재임용(2015년 12월 19일~2016년 12월 18일)

10.2. 전보 발령

- 이순화(사서주사): 교육연수과 → 국립중앙도서관(9월 7일)
- 양진숙(사서주사): 국립중앙도서관 → 교육연수과(9월 7일)
- 김문오(학예연구관): 공공언어과 → 어문연구과(10월 8일)
- 구지민(학예연구관): 한국어진흥과 → 공공언어과(10월 8일)

10.3. 휴직

- 정혜선(학예연구사): 육아휴직 연장(2015년 12월 14일～2016년 12월 13일)